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¹⁾
·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

Care-Oriented Morality : Relationships to Gender and Sex Role Identity

곽 경 화²⁾
Kwag, Kyung Hwa
정 옥 분³⁾
Chung, Ock Bo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care-oriented morality to gender and sex role identity in young adults. Care-oriented morality was assessed by the Ethic of Care Interview(ECI) while sex role identity was assessed by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with a sample of 48 men and 42 women between 20 and 35 years of age. The level of care-oriented morality of most of the subjects was Level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level of care-oriented morality by both χ^2 and ANOVA. That is, women averaged and levels 2.5 and 3 while men averaged levels 1 and 1.5. The ANOVA revealed difference in sex role identity types by levels of care-oriented morality on the ANOVA test.

1) 본 논문은 2000년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2)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3)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학 기술의 발전,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왜곡된 개인주의로 인한 소외 현상 및 이기주의의 심화, 가족의 해체,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청소년 범죄의 증가, 부정 부패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도덕성 확립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덕성(morality)이란 도덕적 원리에 기반을 둔 행위의 체계로, 사회 성원으로서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도덕 원칙에 따라 사고하고, 새로운 도덕 원리를 창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현배, 1994). 다시 말해 도덕성 발달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윤리적 가치 체계를 정립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DeVitis, & Rich, 1994). 그러나 도덕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도덕성 발달은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의 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점은 도덕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강성은, 1994). 그 동안 정신분석이론은 정의적 측면에서, 사회학습이론은 행동적 측면에서, 인지발달이론은 인지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즉,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정직·성실·존경 등과 같은 도덕적 덕목들의 내면화를,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외현적인 도덕적 행동을, 인지발달이론에서는 도덕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박병춘, 1995).

인지발달론적 측면에서 도덕성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도덕적 판단능력이란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성·정의·평등이나 존엄성 등과 같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강

조한다(Rupp, 1996). 특히, Kohlberg(1976, 1984)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도덕 발달 단계들을 제시하였다. 즉, 도덕성은 순서가 일정한 불변의 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단계는 구조화된 사고의 체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덕성은 논리적 사고 과정으로서,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발달한다. Kohlberg는 도덕적 성숙이란 타인으로부터 자아를 분리하고,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Gilligan(1982)은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이론적 틀로서 인정되어 온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여성에게 편파적이라고 비판하였다(방은령, 1995; Muuss, 1996; Pratt, Golding, & Hunter, 1984). 즉,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이성이나 평등, 존엄성, 자율성 등과 같은 남성적 특성을 강조했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보호, 보살핌 및 책임감 등과 같은 여성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도덕성 발달 이론을 대신하여,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살핌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보살핌의 윤리는 개개인이 서로 의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란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협조 및 봉사, 책임, 복지, 배려 등을 강조한다(방은령, 1995). 도덕성이란 본질적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이나 배려,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justice)의 관점뿐만 아니라 보살핌(care)의 관점에서 도덕성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열띤 쟁점 중의 하나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였다(Papalia, Olds, & Feldman, 1989; Walker, 1984; Wark, & Krebs, 1996).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성차를 연구하였으나, 어떠한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Pratt, Golding, Hunter, & Sampson, 1988)은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를 입증하였으나, 또다른 연구들(Ford, & Lowery, 1986; Friedman, Robinson, & Friedman, 1987; Walker, 1989)은 도덕성 발달상에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성별에 따라 도덕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도덕성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척도가 제작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koe, & Marcia, 1991; Skoe, & Diessner, 1994). 그 중에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Sóchting과 Skoe, Marcia(1994)는 성별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집단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성차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성차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나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 즉 성역할이다.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 지워지는 일련의 특성을 말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관점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상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사회적으로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복잡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일 차원의 성역할 개념은 효율적인 적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연속선상의 단일 차원이 아니라 독립된 차원으로서, 개인은 두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Bem, 1974).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여성은 여성성만을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양성적 시각은 남자든 여자든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심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각에서는 양성성을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양성성을 바람직한 성격으로 간주하였다(정진경, 1990).

우리 나라에서도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선영, 1987)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Kohlberg의 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st가 제작한 DIT(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한 연구로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부모의 성격 특성, 양육 태도 및 가정 환경과의 관계(김진복, 1993; 송영호, 1994; 안영자, 1995; 이재호, 1993)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김정만,

1993; 전창동, 1996)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 와서 국내에서도 Gilligan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살핌 윤리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거나(김지은, 1996; 박병춘, 1995; 허정희, 1996), 성별에 따른 도덕적 지향성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이나현, 1997) 등으로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연구된 바 없는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단계별로 실제로 면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및 사고 방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형성·정립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도덕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35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 20세에서 만 35세의 연령으로 제한한 이유는 성인기는 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시기로, 성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험을 바탕으로 도덕적 쟁점이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이다(Papalia, Olds, & Feldman, 1989). 특히, 성인 전기는 성인 중기나 성인 후기에 비하여 성역할 개념이나 도덕성이 상당히 변하는 시기이다(강봉규, 1992; Pratt, Golding, & Hunter, 1984).

본 조사는 총 107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면접을 시도했으나, 이 중에서 102명의 질문지를 회수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녹음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완성인 1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90명을

실제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성은 48명(53.3%)이고, 여성은 42명(42.7%)이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25.7세로, 31명(34.4%)이 만 20~24세, 51명(56.7%)이 만 25~29세, 8(8.9%)명이 만 30~35세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 도구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Skoe(1987)가 제작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ECI : Ethic of Care Interview)」를 본 연구자가 번안·수정하였다.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는 반구조화된 면접 형식으로, 책임이나 보살핌에 관한 네 개의 도덕적 갈등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연구대상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을 질문하였으며, 나머지는 ① 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 중절의 문제, ②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 생활과 이혼의 문제, ③ 부모 부양에 관한 효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상적 갈등 상황들을 제시한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왜 그렇게 판단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보다는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가' 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나 인간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자기 중심적인

단계(제 1 수준)에서 타인 중심적인 단계(제 2 수준)를 거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단계(제 3 수준)로 발달한다. 이때, 제 1 수준과 제 2 수준 사이에는 제 1.5 수준이, 제 2 수준과 제 3 수준 사이에는 제 2.5 수준의 과도기가 존재한다.

Skoe(1987)가 각 수준별 특성과 사례들을 보고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 분석방법」에 따라 각 갈등 상황마다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를 결정하고,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도덕 수준들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평균을 기준으로, 1.25이하이면 제 1 수준, 1.25와 1.75 사이이면 제 1.5 수준, 1.75와 2.25 사이이면 제 2 수준, 2.25와 2.75 사이이면 제 2.5 수준, 2.75 이상이면 제 3 수준이 된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분석한 후 평정자간의 신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0)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48	53.3
	여	42	46.7
연 령	만 20 ~ 24세	31	34.4
	만 25 ~ 29세	51	56.7
	만 30 ~ 35세	8	8.9
교육 수준	대재	32	35.6
	대졸	24	26.7
	대학원 이상	34	37.8
직 업	무직 및 기타	10	11.1
	학생	53	58.9
	서비스직	2	2.3
	사무직	10	11.1
	행정관리직	4	4.4
	전문기술직	11	12.2
종 교	기독교	14	15.6
	불교	14	15.6
	천주교	16	17.8
	무교	43	47.8
	기타	3	3.3
결 혼 여부	미혼	78	86.7
	기혼	12	13.3

리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정자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Skoe와 Marcia(1991)가 보고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 .88~.94였고, 본 연구에서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 .77~.92였다.

2)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 :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내어 이를 기초로 제작한 검사로서, 남성성 척도 20문항, 여성성 척도 20문항, 그리고 긍정성 척도 20문항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고, 여성성 문항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다. 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긍정성 문항은 어느 한 성에게 더 바람직한 특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이다. 여기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계산 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방법으로는 중앙치 반분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각 연구대상자의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의 점수를 산출한 다음, 각각의 중앙치를 구하였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적 정체감,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으면 남성적 정체감,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으면 여성적 정체감,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정진경(1990)이

보고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sim .91$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sim .91$ 였다.

3. 연구 절차

우선, 본 연구자가 번안한 「보살핌의 윤리 면접 검사」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교수 1인과 6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의뢰하여 질문 내용을 검토받았다. 예비조사는 1999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미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검사도구를 가지고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었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동일한 면접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되었다. 면접자가 측정도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후,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문항을 측정하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어떠한 강요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보충 질문을 통하여 갈등 상황과 판단 근거에 관한 심도있는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면접자가 보살핌의 윤리 면접검사를 실시하며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15~30분 정도였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한 내용을 기록에 옮기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에게 각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특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2명의 평정자가 각 반응 내용을 분석하였다. 2명의 평정자 사

이에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몇몇의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하여 합의 과정을 거쳤다.

4. 자료 분석

우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단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척도를 제작한 Skoe(1987)의 「보살핌의 윤리 면접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의 반응을 각각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앙치 반복법에 의하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ohen's kappa를, 성역할 정체감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7.5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	전체
제 1 수준	1(1.1)
제 1.5 수준	19(21.1)
제 2 수준	58(64.4)
제 2.5 수준	11(12.2)
제 3 수준	1(1.1)
전체	90(100.0)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표 3>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90)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1.87	.23	2.25	.40	2.04	.37
남성적 정체감	1.90	.32	2.00	.00	1.95	.23
여성적 정체감	1.56	.32	2.04	.26	1.85	.37
미분화 정체감	1.87	.23	2.11	.33	1.96	.29
전 체	1.83	.28	2.11	.30	1.96	.32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제 2 수준(64.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 1.5 수준(21.1%), 제 2.5 수준(12.2%)순이며, 제 1 수준(1.1%)과 제 3 수준(1.1%)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의 중간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을 등간 척도로 간주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제 2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M=1.96)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M=2.11)이 남성(M=1.83)에 비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조금 높았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양성적 정체감(M=2.04)이 가장 높았으며, 미분화 정체감(M=1.96), 남성적 정체감(M=1.95), 여성적 정체감(M=1.85) 순으로 나타났다.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단계 분류

Gilligan(1982)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Skoe(1987)가 설정한 각 단계별 특성과 본 연구자가 실제로 면접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1) 제 1 수준 : 자기 중심적 단계

이 단계에서는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특징이다. 도덕적 갈등은 자기 자신의 욕구들이 갈등에 놓일 때 나타나며, 어떠한 욕구를 먼저 충족할 것인가를 고심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윤리적 원칙이나 보편적 가치 기준이 없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개인적인 갈등 상황을 주로 제시하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만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제 1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혼전 성관계를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였지만 나 자신이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행동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 후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 상황

판단 기준이 매우 이기적이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며, 부인이나 가족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못 느낀다.

제 1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부남은 이혼하고, 미혼 여성과 자녀를 낳고 시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몸은 결혼한 사람에게 있지만 마음은 미혼 여성에게 있는 결혼 생활은 불행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 상황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배우자를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라도 배우자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제 1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승훈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남편의 태도 때문에 잠시 외도를 생각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

리한다. 남편보다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부부라는 틀 속에 매여서 사는 것은 인생 낭비이다. 승훈이 자녀를 받아주면 데리고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편에게 맡기고 간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 상황

독립을 즐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 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으며, 부모님과 화해하려는 노력도 없다.

제 1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 사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 제 1.5 수준 :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변화

타인에 대한 애착과 연계성이 나타나면서 이기심과 책임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이기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는 자아와 타인 사이의 연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이기심이 타인을 생각하는 책임감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행복이 삶의 목적이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움고 그림에 대한 원칙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 이 보다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제 1.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꽂초를 처리하기가 무척 애매하다. 요즈음 청결이라는 이유로, 많은 휴지통을 없앴기 때문이다. 그냥 함부로 버리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휴지통이 나타날 때까지 손에 들고 다니자니 손에 담배재가 묻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장소에 버린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 상황

처음에는 임신 중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곧 낙태나 입양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아이의 입장에 대해 약간의 배려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판단 기준은 이기적이다.

제 1.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 살고 있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고 하면 혼자서라도 아이를 책임질 수 있지만, 우리 나라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 생활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 상황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때로 결혼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배우자와 자녀들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제 1.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승훈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 상황

잠시나마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며, 도움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 1.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은 어머니를 받아들였지만 같이 살수는 없다. 나이도 있고, 독립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혼자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3) 제 2 수준: 책임감과 자기 희생의 단계

이 관점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며, 모성애나 부성애적인 책임감을 매우 강조한다. 선행이란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보살핌이나 배려적 행동을 의미한다. 개인은 사회적 가치를 채택하고, 인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행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이 수준에서 생존이란 타인으로부터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도덕적 갈등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제 2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심한 병을 앓고, 그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 후 홀로 남으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빨리 맞이하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 아직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서 다른 분을 어머니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인생이고, 한 남자가 노년에 홀로 생

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결정을 수용하였다. 오직 아버지의 인생이 보다 운택해지길 바랐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 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거나 태어날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여 낙태를 지지한다.

제 2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태를 해야 한다. 유부남이 혼외 정사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아동 학대이다. 만약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과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받아봐야 편부모의 반쪽 짜리 사랑일 뿐이다. 태어날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아이를 지워야 한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 상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욕구는 이차적인 문제이다.

제 2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승훈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아무리 승훈을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있는 민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살며, 이 남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이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 상황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최대한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2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4) 제 2.5 수준 : 선행에서 관계에 대한 진실성으로 변화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타인을 보호하려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자기 희생과 인습에 내재된 보살핌 사이에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된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부분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기 자신의 관점과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제 2.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자원 봉사 차원에서, 한 학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보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시험도 있고, 너무 바빠서 그 학생을 계속 봐줘야 하는지 그만 두어야 하는지 갈등하였다. 그 학생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해 보았다. 시춘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으며, 방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듣고 보니 계속 지도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방문하는 회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 상황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

라도 보다 유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한다. 자녀가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임신한 여성에게 관심의 초점이 맞춰진다.

제 2.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의 출산 여부는 미혼 여성의 판단에 맡기고, 사과하고, 위자료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는 낙태를 하면 안되지만, 낙태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혼 여성이 힘들게 되며,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비극이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 상황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2.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내인 민희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대화를 시도한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이혼을 하고 회수를 만나겠다. 배우자라는 의미는 인생의 반려자인데, 지금의 관계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재혼을 하겠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 상황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행동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고려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를 잠시 동안만 모셔도 된다고 제안한다.

제 2.5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자신이 불편하겠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그러나 모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말하고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져야 한다. 사회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결혼하고, 생활 기반을 굳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 제 3 수준 : 보살핌의 윤리

이 수준에서는 판단에 대한 기준이 선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변한다. 도덕적 판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제 의도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사회적 인습에 제한 받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한 결정을 책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계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며,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 3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취직 제의를 받았다.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 동생에 관한 것이었다. 내 동생은 몇 년동안 아파서 공부를 중단한 상태였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 3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지금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 동생을 더 돕기 위해서는 취직을 할 수 없었다. 나를 위해 행동할 것인가? 동생을 위해 행동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

다. 내가 동생을 돕는 것이 정말 내 동생을 위한 행동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동생을 돕지 않으면 동생이 불행해 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단지 나의 죄책감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생에게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② 임신 중절에 관한 갈등 상황

단순히 낙태를 원한다거나(제 1 수준), 임신한 여성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제 2 수준)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예를 들어 아이,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 등)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3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태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아이는 하나의 생명이고, 태어난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하여 지금의 부인과 자녀, 가족들, 미혼 여성, 그리고 나 자신도 당장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③ 결혼 생활에 관한 갈등 상황

우선은 배우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같이 이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다.

제 3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같이 사는 것이 고통이라면 이혼해야 한다. 자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랑도 없는 부부 관계에서 건전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없

으므로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나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한다.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 자기 자신에게 잘하고, 회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혼하고 새출발한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으며, 나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무감각했다면, 남은 결혼 생활도 장래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력을 보아온 자녀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해 줄 것이다.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갈등 상황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므로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다. 대화를 통하여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다면, 기본적인 규칙을 설정하여 두 사람 모두 협동하여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왜 같이 살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제안한다.

제 3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은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나서 대화를 나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들은 다음에, 그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만약 혼자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들면, 어머니에게 내 생각을 말한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하거나 자주 만나자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와 이야기 한 후에 내가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같이 살 수도 있다.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를 산출한 후에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에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이고 있다. 남녀 모두 제 2 수준이 각각 33.3%와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으로 남성은 제 1.5 수준(17.8%)이, 여성은 제

<표 4>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남	여	
제 1 수준	1(1.1)	0(0.0)	1(1.1)
제 1.5 수준	16(17.8)	3(3.3)	19(21.1)
제 2 수준	30(33.3)	28(31.1)	58(64.4)
제 2.5 수준	1(1.1)	10(11.1)	11(12.2)
제 3 수준	0(0.0)	1(1.1)	1(1.1)
계	48(53.3)	42(46.7)	90(100.0)

$\chi^2(4, N=90)=18.01***$

*** p<.001()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2.5 수준(11.1%)이 각각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를 산출한 후에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성적 정체감, 남성적 정체감, 여성적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 집단 모두 제 2 수준이 각각 17.8%, 16.7%, 12.2%, 1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종속 변수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은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의 중간이나 등간 척도로 간주하였다⁴⁾.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통하여, 성별이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의한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표 5>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 빈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	성역할 정체감				전 체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제 1 수준	0(0.0)	0(0.0)	1(1.1)	0(0.0)	1(1.1)
제 1.5 수준	5(5.6)	3(3.3)	6(6.7)	5(5.6)	19(21.1)
제 2 수준	16(17.8)	15(16.7)	11(12.2)	16(17.8)	58(64.4)
제 2.5 수준	5(5.6)	1(1.1)	2(2.2)	3(3.3)	11(12.2)
제 3 수준	1(1.1)	0(0.0)	0(0.0)	0(0.0)	1(1.1)
계	27(30.0)	19(21.1)	20(22.2)	24(26.7)	90(100.0)

$\chi^2(12, N=90)=9.66$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표 6>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별	1.95	1	1.95	24.77***
성역할 정체감	.76	3	.253	.21*
성별×성역할 정체감	.41	3	.14	1.72
오차	6.45	82	7.87E-02	
전 체	9.32	89	.10	

* p<.05, *** p<.001

4) 이는 Likert-type 척도도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성별($F=24.77, p<.001$) 및 성역할 정체감($F=3.21,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검증을 실시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여, Scheffé검증을 통하여 그 차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F값이 유의한 경우라도 Scheffé검증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IV. 논의 및 결론

1.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단계는 제 2 수준(64.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 1.5 수준, 제 2.5 수준 순이었으며, 제 1 수준과 제 3 수준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연구한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연구에서는 제 1.5 수준(37.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 2.5 수준, 제 2 수준, 제 1 수준, 제 3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결과에 비해 제 2 수준이 많았으며, 제 1.5 수준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중에서도 제 2 수준이 조금 더 많고,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 1.5 수준이 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문화권마다 어떤 공유된 문화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기본적인 인성 구조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DeVitis, & Rich, 1994). 즉,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집단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기본적으로 인간을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책임이나 상호성을 강조한다. 반면,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유가 우선이며, 자율성과

독립을 강조한다(유가효, 1995).

그러나 본 연구와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제 2.5 수준과 제 3 수준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3.3% 정도인 반면, Söchting과 Skoe, Marcia(1994)의 연구에서는 31.2%였다.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고,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도덕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관이 유입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치관 및 도덕성의 정립, 도덕성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자기 희생적인 제 2 수준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많았으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조율하는 제 3 수준의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청소년 범죄의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개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서구 사회의 가치관을 융화시키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동안 유교는 가부장적 인륜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제한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더군다나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 자기 자신에게 근거해 왔기 때문에 개인이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교는 집단 의식이나 집단적 권위에 개인을 매몰시켰던 덕치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와 자율의 입장에서 개인을 윤리 실천의 주체로 확립하였다. 인(仁)이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이며, 이러한 인의 실천은 바로 나를 그 주체로 확고히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유교적 관점에서 개인은 타율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래성에 근거한 도덕률에 의하여 실천하는 자율적 주체이다(조남욱 등, 1999). 이렇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통합한 유교적 가치관은 자아와 타인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보살핌의 윤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우리는 보살핌의 윤리와 새로운 유교적 가치관을 서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도래하는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또한 새 천년을 지배할 새로운 윤리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를 통해 개별화되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박윤명, 1997).

2.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성별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p < .001$)가 있었다. 남녀 모두 제 2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 남성은 제 1.5

수준이, 여성은 제 2.5 수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도덕적 지향성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보살핌 지향성을 보다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지향성에 있어서 성역할 정체감보다 성별에 따른 설명력이 크다는 이나현(1997)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이 성별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Sóchting과 Skoe, Marcia(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있어서 중요한 예언 변인이라고 한 Gump(1994)의 결과와도 상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서구적 사고방식인 개인주의의 유입으로 가치관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치관 때문으로 여겨진다. 최근 들어 자녀 양육에 관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나,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 책임자로서, 자녀 양육의 일부분만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전통적 가정교육원리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사랑을 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다스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칭찬하고 잘못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비로운 사랑을 해야 한다(정옥분 등,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 및 양육행동 원리가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있어 남녀 성차를 유발한다고 판단된다.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뿐만 아니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서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높았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을 알아보면, 남성적 정체감이나 여성적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보다 양성적 정체감 집단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별뿐만 아니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도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의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차이가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차이보다 뚜렷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수가 90명에 제한되었으나, 보다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명백하게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비교 문화적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도덕성 발달과정과 양상은 그 개인이 속한 문화적 체계

내에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측정 도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감이나 애착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과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만 20세에서 35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연구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갈등 상황은 서구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방법도 보다 우리 정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자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어 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 강봉규(1992). 발달심리학. 서울 : 정훈출판사.
- 강성은(1994).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만(1993). 국민학생의 도덕적 판단수준과 도덕적 행위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박성연(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8(1), 125-142.
- 김지은(1996). 캐롤 길리간의 배려 윤리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복(1993). 부모의 인성 특성과 자녀의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배(1994). 도덕성 향상을 위한 대화학습 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춘(1995).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성숙의 근거 연구 : 길리간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1988). 청년기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명(1997). 도덕성의 구성과 도덕 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은령(1995). 도덕성 발달 과정에 관한 자기보고의 내용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영호(1994). 부모의 육아방식과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자(1995).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효(1995).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과 비교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63-88.
- 이나현(1997). 배려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순(1985). 유가사상에 있어서 도덕성과 예술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춘천교육대학교), 25, 125-142.
- 이재호(1993).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가정환경 변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창동(1996). 농촌 국민학교 학생의 도덕적 판단력과 정직행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옥분·김광웅·김동춘·유가효·윤종희·정현희·최경순·최영희(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 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7.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82-92.
- 조남욱·이동희·안재순·송석준·박홍식·이기동·권정안·이상은·최영진·오석원·최일범·천인석·양재열·이문주(1999).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 아세아문화사.
- 허정희(1996). 돌봄의 도덕성 이론과 기독교 교육 : Carol Gilligan의 도덕성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Colby, A., & Damon, W.(1983). Listening to a different voice : A review of Gilligan's in a different voice. *Merrill-Palmer Quarterly*, 29(4), 473-481.
- Cortese, A.(1984). Standard issue scoring of moral reasoning : A critique. *Merrill-Palmer Quarterly*, 30(3), 227-246.
- Cowden, M. A.(1992). Faith development in women : A comparison of the moral development theories of Carol Gilligan and Lawrence Kohlberg and the faith development theory of James Fowler.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Day, R. W. C.(1997). Relations between moral reasoning, personality traits, and justice-decisions on hypothetical and real-life moral dilemmas.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DeVitis, J. L., & Rich, J. M.(1994). The theories of moral development. 추병환 역(1999). *도덕 발달 이론*. 서울 : 백의.
- Flanagan, O., & Jackson, K.(1986). Justice, care, and gender : The Kohlberg-Gilligan debate revisited. *Ethics*, 97, 622-637.
- Ford, M. R., & Lowery, C. R.(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 A comparison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77-783.
- Friedman, W., Robinson, A., & Friedman, B.(1987). Sex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A test of Gilligan's theory. *Psychology of Women's Quarterly*, 11, 37-46.
- Gibbs, J. C., Arnold, K. D., & Burkhardt, J. E.(1984). Sex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55, 1040-1043.
- Gibbs, J. C., Clark, P. M., Joseph, J. A., Green, J. L., Goodrick, T. S., & Makowski, D. G.(1986). Relations between moral judgment, moral courage, and field independence. *Child Development*, 57, 185-193.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1988). Two moral orientations :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3), 223-237.
- Gump, L. S.(1994). The relationship of culture and gender to moral decision-mak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 Hart, D.(1988).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ocialization and identification as predictors of adult moral judgment development. *Merrill-Palmer Quarterly*, 34(3), 245-260.
- Heibrun, A. B.(1986). Androgyny as type and androgyny as behavior : Implications for gender schema in males and females. *Sex Roles*, 14, 123-139.
- Kohlberg, L.(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Kohlberg, L.(1981).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moral development*. Massachusetts : Clark University Press.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김민남 역(1988). *도덕발달의 심리학 : 도덕단계의 본질과 타당성*. 서울 : 교육과학사.
- Lyons, N. P.(1983). Two perspectives : On self, relationships,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 Review*, 53(2), 125-145.
- Lyons, D. S., & Green, S. B.(1988). Sex role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college experiences. *Sex Roles*, 18, 31-40.
- Muuss, R. E.(1996). *Theories of adolescence*(6th ed.). 정옥분 · 윤종희 · 도현심 역(1999). *청년발달의 이론*. 서울 : 양서원.
- Nicholls-Goudsmid, J.(1997). To have and have not : Procreative choice and the ethic of care.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1989). *Human development*. 정옥분 역(1992). *인간발달 II :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서울 : 교육과학사.
- Pratt, M. W., Golding, G., & Hunter, W. J.(1984). Does morality have a gender? Sex, sex role, and moral judgment relationships across the adult lifespan. *Merrill-Palmer Quarterly*, 30(4), 321-340.
- Pratt, M. W., Golding, G., Hunter, W. J., & Sampson, R.(1988). Sex differences in adult mor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56, 373-391.
- Rupp, L. G.(1996). An analysis of adolescent male and female responses to Kohlberg's moral interview : Using two different editions of the standard issue scoring manual(1979 vs. 1987).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Skoe, E. E.(1987). The development and partial validation of a care-based measure of mor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koe, E. E., & Diessner, R.(1994). Ethic of care, justice, identity, and gender : An extension and replic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0(2), 272-289.
- Skoe, E. E., & Marcia, J. E.(1991). A measure of care-based morality and its relation to ego identity. *Merrill-Palmer Quarterly*, 37(2), 289-304.
- Smetana, J.(1984). Morality and gender : A commentary and Pratt, Golding, and Hunter. *Merrill-Palmer Quarterly*, 30(4), 341-348.
- Söchting, I.(1996). Ethic of care and its relationship to attachment, object relations and social cognition.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öchting, I., Skoe, E. E., & Marcia, J. E.(1994).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31, 131-147.
- Walker, L. J.(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677-691.
- Walker, L. J.(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
- Walker, L. J., de Vries, B., & Trevethan, S. D.(1987). Moral stages and moral orientations in real-life and hypothetic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58, 842-858.
- Walker, L. J., & Taylor, J. H.(1991). Stage transitions in moral reasoning: A longitudinal study of developmental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330-337.
- Wark, G. R., & Krebs, D. L.(1996). Gender and dilemma differences unreal-life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20-230.